

“추석명절 집에서 쉬기”

군산시, 28일부터 특별방역기간 설정, 방역수칙 준수 호소

군산시가 이번 추석 명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고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오는 27일까지 시행하고, 28일부터 오는 10월 11일까지 추석명절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추석명절 방역종합 대책은 코로나19 재유행과 동절기 독감이 함께 발생할 우려에 따른 대책으로 개인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이 실시된다.

우선 개인방역 수칙 준수는 고향 방문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귀경이나 귀가 후 집에 머무르며 발열 호흡기 증상을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바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또 시는 종교시설, 중·고위험시설 24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추석연휴 전 방역수칙 준수를 집중점검, 군산역 및 터미널 이용자에 대한 발열체크 및 소독 강화, 시내버스·택시 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교육 실시 사업이 많이 모이는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가족대표 장보기 홍보를 통한 방문 인원 축소를 유도하고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을 지도할 계획이다.

요양시설은 외부인 출입 및 대면 면회를 원칙적 금지나 부득이한 경우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고 또한 시간여행마을, 경암동철길마을, 고군산군도 등 관내 주요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배치해 방역수칙 이행사항

을 점검한다.

시는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 5개반 15명으로 구성해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환자 급증 상황을 대비하여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체 채취 긴급지원팀 구성하여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또 24시간 상황근무체계 유지를 위한 추석명절 종합상황실 및 재난상황실을 운영해 사고사고, 생활민원 처리, 유관기관 협조 및 비상대응체계를 갖춰 혹시 모를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시민 모두가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하는 것만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며, 이번 추석 명절은 나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대학교 LINC+사회혁신센터에서는 최근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반려동물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마을 만들어요”

군산대 LINC+사회혁신센터, 반려동물복지포럼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이 1,000만 시대를 맞아 군산대학교 LINC+사회혁신센터에서는 최근 ‘사람과 동물이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반려동물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대면 참여의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비대면 참여와 더불어 진행됐다.

반려동물복지포럼은 국립군산대학교 LINC+ 김영철 단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한국성서대학교 김성호 교수의 주제특강과 더불어 사회혁신센터 강령숙 센터장의 사회로 동물권 행동 카라 전진경 심의이사, 군산동물

유기견보호소 이정호 소장, 전북도청 축산과 동물보호팀 이병종 팀장의 패널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김성호 교수는 국내의 사례를 들면서 사람과 동물이 유대하는 것(Human Animal Bond, 이하 HAB)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포럼을 통해 전북도가 타 시도보다 동물복지에 앞서 성숙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 산업기반 구축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반려동물 복지 및 연관 산업 성장기 육성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 통

군산시, 수산물 시장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군산시는 오는 29일까지 수산물 도·소매시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 코로나19 대비 방역점검, 환경미화활동 등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어업인과 수산업을 보호하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해 올바른 원산지 표시 이행과 정착을 유도해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 품목은 제수 및 선물용으로 추석 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조기), 돌류, 새우, 갈치, 문어 등이며, 최근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참돔, 우렁챙이, 냉장명태, 활 가리비 등이다. 단속 내용은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 위생해충 구제활동

군산시보건소가 추석을 앞두고 위생해충 구제 활동에 돌입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보건소는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및 감염병을 예방하고 모기 등 집중 위생해충구제 활동에 돌입하기 위해 2020년 추석 맞이 범시민 특별 방역주간을 오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범시민 특별 방역주간 동안 종합적인 방제 방법으로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방역소독팀을 6개반(10명/반씩·주·야간반)으로 편성했다.

새벽소독반은 환자이용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공설시장 등 취약시설에 코로나19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중 살균소독을 실시한다.

주간에는 야외놀이시설, 하수구,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풀숲, 소공원 등에 주력하고 모기, 깔따구 등이 활동하는 야간에는 가열연막·연무소독을 강화함으로써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병원, 상반기 의무기록 충실 작성 의사 5명 선정

원광대학교병원은 상반기 의무기록 충실 작성 의사에 신민혁·장철원(내과)·황호진(신경과)·김민우(신경외과)·양한술(외과)씨 등 5명이 선정됐다.

24일 병원에 따르면, 원광대병원은 환자 진료와 질병 치료, 예후에 관한 의무기록을 충실한 작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 의료정보(의무기록)관리위원회에서는 상·하반기 의무기록 충실 작성 여부에 따라 선정된 의사들에게 상장과 부상을 수여해 포상하고 있다.

선정된 의사들은 환자수·재원일수 대비 퇴원 미비기록 발생건수, 미비기록 발생 건수, 현재 미비기록 건수, 미비기록 발생 후 작성의 신속성·협조성 향상에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석현 위원장은 “의무기록은 환자의 모든 병증과 치료 내용, 예후에 관



원광대학교병원은 상반기 의무기록 충실 작성 의사에 신민혁·장철원(내과)·황호진(신경과)·김민우(신경외과)·양한술(외과)씨 등 5명이 선정됐다.

한 정보가 기록돼 있는 중요한 진료 기록 작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비대면 운동프로그램 진행, 시민 호응

군산시가 지속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과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사회적 물리적 거리두리로 인한 실외활동 제한 등으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및 건강취

약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 운동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보건소 방문보건 전담인력이 건강취약계층을 방문해 건강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보기와 웨도우 운동형 수건 및 운동 포스터를 제작, 배부한다.

시각적 운동효과를 높이기 위한 만

보기 제공으로 개인별 신체활동량 확인 및 걷기 활동을 독려하며, 웨도우 운동용 수건을 활용한 낙상예방 하지 근력 강화와 운동포스터 배부를 통해 하루 10분 근력운동을 안내한다.

규칙적 운동습관 형성 및 운동참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동 참여 표 작성 및 참여인증을 통해 성실하게 참여한 자를 선정해 추후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장관상

‘지리적표시제’ 규제사항 등

익산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장관상과 함께 3000만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 중에서 시·도 예비심사와 온·오프라인 심사를 거쳐 수상 지자체가 선정됐다.

시는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산단조정계장이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의 주제를 제출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박갑수 계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식품기업 유치와 김치중주국 확보를

위한 ‘지리적표시제’에 대한 규제사항과 이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을 소개했다.

전북도는 지난 16일 예비심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 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분야 등 3개 분야의 대표 사례 7건을 선정하고 본선에 제출했으며 이 가운데 익산시가 유일하게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2년 연속 기관 표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라며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